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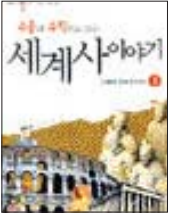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 겨울잠을 자느라 겨울을 알지 못하는 아기곰이 눈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찾아다니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다. 매서운 추위속에서 주인공 베르티는 과연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주니어랜덤·9천원)

▲유물과 유적으로 보는 세계사 이야기(전2권)=교과서에 수록된 세계문화유산을 열쇠로 세계사의 흐름을 설명한 책이다.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전설과 신화, 발굴 이야기 등 세계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알기쉽게 설명돼 있다.



(씩크하우스·각 9천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헬렌 옥슨버리가 오늘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30여년만에 새롭게 탄생시켰다. 기발한 발상과 유쾌한 말장난이 어우러져 아이들에게 흥미를 준다.



(웅진주니어·1만2천원)

▲여행하는 물=자연과 과학에서 꼭 접해야 할 새, 곤충, 식물, 날씨, 물 등 10가지 주제를 입체적으로 풀어 쓴 '비주얼 과학 탐험' 시리즈.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등 물의 개념을 사진과 곁들여 생생하게 보여준다.

(웅진주니어·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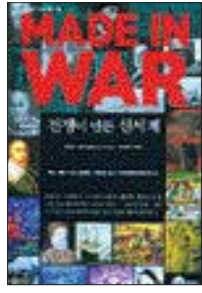
▲빅문수전=경종과 영조시대에 활약한 문신으로 오늘날까지 암행어사의 대표인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박문수에 얽힌 일화 9편을 모았다. 원전의 뜻과 느낌을 최대한 되살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고전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창비·9천원)

기술 혁명이 곧 전쟁의 역사다

‘MADE IN WAR-전쟁이 ...’ 맥스 부트 지음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미국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이지만, 전쟁사에서는 400여년 동안 전 세계 해군의 핵심전력이었던 전함의 지위를 항공모함이 대체한 일대 사건이다.

당시만 해도 많은 해군 제독들은 전함이 해상 전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가의 보도'로, 항공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은 해전의 부속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관점은 일본의 항공모함 야기기에서 출격할 항공대가 진주만 공습 2시간 만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 18척을 부수고 항공기의 86%를 파괴함에 따라 전쟁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다.

일본이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게 가공할만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항공산업이었다.

독일이 '전차군단'의 신화를 만든 것도 기술력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MADE IN WAR- 전쟁이 만든 신세계'의 저자인 맥스 부트는 이 처럼 기술의 진보가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전쟁사를 '화약혁명',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정보혁명' 시기로 구분한다. 진주만 공습은 '제2차 산업혁명'에 해당한다.

미 외교관계위원회 국가안보 분야의 선임 연구원



전쟁의 역사는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해왔으며, 기술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승자와 패자로 갈렸다. 이스라엘 포병부대가 레바논 국경을 포격하는 장면.

구원인 저자는 과거 500여년 동안 전개된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군사혁명을 이룬 국가와 실패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찾고 있다.

16세기 해양을 제패했던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14세기의 '화약혁명'으로 영광의 시대를 마감했다. 당시 스페인과 해상권을 다펠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이동식 포가(포신을 얹는 받침)를 갖춘 함포를 적극 수용해 스페인 함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냈다.

'제1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전투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쾨니히그라츠 전투다. 프로이센은 당시 여행수단으로 여겨지던 철도를 활용, 기동력의 절대우위에 섬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독일 제국건설의 초석을 놓았다. 또 노리쇠 장전형 '바늘총'을 사용함으로써 총구를 통해 총알을 장전해야 했던 머스킷 총을 사용하던 오스트리아 군을 압도했다.

그러나 저자는 기술의 진보가 전쟁에 있어서 '혁명'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혁명 자체를 이끌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된 전술과 조직, 훈련, 리더십을 비롯한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승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러시아와 미국 대 게릴라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체첸, 베트남, 이라크에서 열등한 전력을 가진 적에게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쟁의 패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태했다고 진단한다.

(플래닛미디어·3만98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불시에 찾아오는 위기, 성장 기회로 삼아야

마시멜로... 데 포사다·엘런 싱어 지음



지난 2005년 말 출간돼 2006년 내내 베스트셀러 기록을 갈아치우며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던 '마시멜로 이야기'의 2권이 출간됐다.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의 저자는 호아킴 데 포사다와 엘런 싱어로 전작과 같다. 저자들은 한국어 판을 위해 쓴 서문에서 한국 독자들의 "그 후로 참리는 어떻게 됐나요?"라는 질문이 두 번째 이야기를 쓴 동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순간의 즐거움은 뒤로 미뤄둔다'는 큰 주제는 전작과 같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마시멜로 법칙'의 구체적 실천전략이 제시된다. 4년의 대학생활을 마친 전직 운전기사 찰리가 기업에 입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저자들은 변화의 시기에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찾아오기 마련인 '위기'를 '성장'과 '목표 재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경제신문·1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형식적 민주화 후 한국 사회의 과제 성찰

만남 서경식·김상봉 지음



'디아스포라 기행'(돌베개)의 저자인 제일 지식인 서경식씨와 '서로주체성'의 철학을 내세우는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만나 나눈 대담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만남'은 이들이 지난 5월19일부터 8월15일까지 광주와 한 찾집, 서울의 서서 자택, 서울의 카페 등에서 9차례, 40시간에 걸쳐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이들은 각각 외부와 내부, 작가와 철학자의 시선으로 민족주의·탈민족주의·국민국가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고민하고, 형식적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과제들을 성찰한다.

이번 대담이 서씨에게는 조국, 한국에서 가진 2년간의 연구교수 생활을 마감하는 의미를, 김씨로서는 '거리의 철학자'에서 '5·18 철학자'로 변신한 뒤 새롭게 시작한 작업을 중간정리하는 의미를 각각 지니고 있다.

(돌베개·1만7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헨리 시엔키에비츠 '쿠오 바디스'

조선대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4년은 유신반대로 인해 대모가 한창이었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휴교령으로 문을 닫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사회적 현실은 매우 암울했고 현실참여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난 주로 등산과 책을 벗 삼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누님으로부터 빌린 '쿠오 바디스'를 감동 깊게 읽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에루살렘과 로마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실을 극화해서 쓰여진 퀴바디스는 당시 나에게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의문스러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됐다. 귀한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천지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내 자신이 놓여있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됐다. 지금도 나와 인연을 맺은 많은 제자들에게 쿠오 바디스를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있다.

쿠오 바디스는 '쿠오 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네로 황제는 당시 로마에서 발생한 대항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몰아 그들을 살해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광석 채취용으로 형성된 지하동굴로 숨어들어가게 되며 카타콤이라 불리는 지하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 큰 핍박을

나를 향해 있는 하나님 사랑



당하게 된다. 베드로가 살해당할 것을 염려한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베드로는 이들의 뜻을 받아들여 로마를 빠져나가게 된다. 로마시내를 빠져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예수에게 묻는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쿠오 바디스 도미네)"

예수는 "네가 버린 나의 양을 위해 내가 대신 로마로 들어간다"고 답하면서 베드로가 피난 나온 로마로 향한다. 이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어 예수를 찾아 나서지만 예수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되찾는다. 베드로는 그가 지녔던 지팡이를 예수를 만났던 그 곳에 꽂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로마시내로 향한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함차게 로마로 발걸음을 되돌린 베드로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점이 책을 읽고 난 뒤 드는 의문점이었다. 그 후 나는 이 의문점들을 풀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방황했다.

그로부터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진리는 베드로나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의인이라 착각했었던 죄인된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나의 마음에서 절로 나올을 느꼈고 거듭남(born again)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됐다.

우리의 청소년들, 특히 대학입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미래의 주인공인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쿠오 바디스를 꼭 읽어보기를 권하면서 자신을 향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원한다.

전 호 중
(조선대 총장)

